

# 잡지정보 등 22개 DB 제공

**유**엘정보통신(대표 유태식)은 93년 2월 한국DB통신으로 설립해서 95년 5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전문 정보제공업체이다. 87년부터 열린세무정보에서, 7년동안 세무/노무 정보를 제공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태식 사장이 설립한 정보제공업체로 현재는 22개의 DB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장은 "데이터에서 천리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대부분의 정보제공업체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된 예를 들어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고 하면서 유엘정보통신은 순수 정보제공업체로 시작한 몇 안되는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유사장은 어느 잡지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찾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적이 있었다. 이런 자신의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잡지정보'라는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아이템을 선정후 국내 6천여개의 잡지에서 300여종을 선택하여 잡지사를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결과는 저작권문제로 전문수록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차선책으로 잡지사와의 연계를 통해 잡지들의 목차를 수록한 것이 유엘정보통신의 시작이었다.

## 초창기 IP 운영의 어려움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이 되고 PC통신이 활성화되면 순조롭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산이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 잡지사와의 연계는 예상과는 달리 순조롭지 않았으며 일일이 전화 또는 하루에 열군데 이상은 잡지사를 방문하여 PC통신의 개념과 파급효과를 인식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다.

또한, 부지런히 운영을 하였지만 채팅, 연애정보, 토정비결 등 흥미위주의 정보에 치중되어 있던 당시 PC통신 15만 이용자에게 국내 잡지 정보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값진 정보제공, 알찬 정보제공에 일익을 담당해 보자'는 각오로 잡지협회 등 여러 곳을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

유사장은 "어느 정보나 마찬가지로 신선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으며 PC통신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면서 초창기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 1993년만도 못한 IP 환경

정보제공원을 확보하는 것외에는 통신사와의 관계 등 IP여건은 지금보다 93년도도 좋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IP가 부족했기때문에 IP와 통신사와의 계약조건이 7대 3 이었다. 지금의 4대 6의 비율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또한, 정보제공원에 대한 로열티도 93년도에 10%에서 현재는 30%-50%까지로 인상되었으니 당시가 IP하기에는 유리했다.

유엘정보통신이 어느정도 서비스가 안정되고 확장을 하게 된것은 IP개설 1년정도가 흐른 뒤였다. 유사장은 "잡지 정보가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정보는 아니지만 잡지정보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잡지정보에서 힌트를 얻어 무비매거진, 연예영화신문, 골프다이제스트, 월간패션쇼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 새로 시작하는 IP에게

현재 IP를 하려면 최소한 3달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장은 IMF를 맞아 많은 실직자들이 IP를 하려는 것에 대해 "지금 좋은 정보는 거의 서비스되고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운영과 수익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향후 IP 방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들을 누가 더 잘 포장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엘정보통신은 IP에서 CP로의 전환이 늦을 경우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것임을 인식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는 웹서비스 전환을 계획중이다. 